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드리는 열일곱 번째 “영상택배” 안내



이번 주 영상 택배 강연은 전고려인연합회 조 바실리 회장이 진행하는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와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입니다. 전고려인연합회는 1980년대 후반 소련에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고려인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 1993년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로 출범했습니다. 연합회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의 부흥, 고려인 기업 간 상호 정보교류, 남북한과 고려인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 고려인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조 바실리 이바노비치 회장은 1989년 러시아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후 1999년부터 전고려인연합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14주년 회원의 날 취소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회원의 날과 개원 기념식이 안타깝게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문을 연 날이 2006년 9월 2일입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개원 일을 전후로 회원의 날과 개원 기념식을 거행해왔습니다. 작년까지 모두 열 번에 걸쳐 열린 회원의 날에 참석한 분들이 누적 인원 천여 명에 이릅니다.

2010년 열렸던 회원의 날에 참가자 가운데 가장 어린 이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김병문 이사장님의 자녀였는데 어느새 이십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당시 대학생으로 회원의 날 스텝으로 참가했던 회원들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연구자가 되어 연구원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했습니다. 강산이 변할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연구원 회원의 날 기록을 짧게나마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 회원의 날을 진행했던 곳이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휴양림이었습니다. 2010년 8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연구원 첫 번째 회원의 날에 이어 이듬해 8월 27일과 28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에서 두 번째 회원의 날이 열렸습니다. 평치마을과 도농상생 협약을 통해 농촌마을과 인문학의 동행이란 주제로 시작된 공동사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의 날은 2012년 8월 25일과 8월 26일 양일에 걸쳐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빗속을 뚫고 하늘로 솟아 오르던 풍등의 향연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네 번째 회원의 날은 2013년 8월 31일과 9월 1일, 전북 장수군 번암면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이사님이 진행한 뜰체험을 서로 받으려 침대에 눕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섯 번째 회원의 날이 열린 날은 2014년 8월 30일과 31일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 회원의 날에 90분 동안 진행되었던 왕기석 이사님의 소리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여섯 번째 회원의 날은 2015년 8월 22일과 23일에 전북 완주군 초남이 성지에서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 회원의 날은 개원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2016년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서 열렸습니다. 1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변산 앞바다를 수놓던 수백의 풍등과 밤하늘을 울려 퍼진 함성이 떠오릅니다. 여덟 번째 회원의 날은 새 모습으로 단장한 초남이 성지에서 2017년 9월 2일과 3일 열렸습니다. 늦여름 새벽을 열던 초남이의 여명이 기억납니다. 아홉 번째 회원의 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2018년 9월 1일과 2일에 걸쳐 80여 분의 회원과 함께 열렸습니다. 지금은 배우 조정석씨의 아내가 된 가수 거미씨의 어머니가 회원의 날에 참석해 왕기석 이사님과 함께 작은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열 번째 회원의 날은 우리 연구원 김순석 회원이 원장으로 있는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열렸던 열 번째 회원의 날은 전통 한옥 체험과 향음주례 체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열한 번째 회원의 날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열리지 못하지만 2021년 개원 기념일 즈음에 열릴 수 있다는 바람을 나눠봅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 열한 번째 회원의 날에도 아래 그림처럼 세대를 넘어 서로와 서로가 마음 나누는 날이 될 것이라 믿으며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플로르 카페(Cafe de Flore)

- 카페 산책 3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되 마곳 카페 쪽에서 본 플로르 카페

지난 호에서 카페 플로르와 관련하여 썼지만, 그것은 시인 아폴리네르와 피카소와의 우정, 마리 로랑생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미라보 다리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플로르 카페를 다루고자 자료를 찾던 중 고려대 이광주 교수의 「유럽 카페 산책」을 읽게 되었고 이를 참고하여 '플로르 카페'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파리는 19세기 무렵부터 몽마르트 지역에서 화가들이 모여 문화의 한 핵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 예술가와 지성인들의 무리가 소르본 대학에 위치한 몽파르나스 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생 제르맹 데 프레에서 자리 잡는다. 몽파르나스로부터 생 제르맹 데 프레교회에 이르는 1km 구간은 패션의 거리로 유명하다. 이 패션 거리는 20-3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생 제르맹 데 프레 쪽에서 몽파르나스를 바라본 경치, 거리 좌우가 패션용품점이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생 제르맹 데 프레'는 위 사진의 이쪽 끝에 위치한다. 이곳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조르주 상드, 발자크, 에밀 졸라 등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이곳을 출입하면서 명색이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 문화, 지적 요람이 되었다.

이는 플로르, 뒤 마고와 같은 카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두 카페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가깝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파리의 카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 골목의 다양한 카페들이 그 곳의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1881년에 오픈한 '플로르 카페Cafe de Flore'라는 이름은 꽃과 풍요의 상징인 플로르 여신에서 따왔고 파리 카페의 황금기를 일궈냈다. 이 카페는 처음에 문학, 철학카페라 불리기도 하게 되니 당연히 출입자들은 지성인들이었고 이들의 지적·정치적 담론의 장소였다.

그러나 후일에는 탐미주의자들이 몰려 새로운 카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플로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그 명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플로르에서 발간한 아폴리네르의 문예지와 앙드레 지드의 문예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곳 단골들 명단에는 생텍쥐페리, 피카소, 헤밍웨이, 카뮈, 앙드레 말로 등 문인들뿐만 아니라 시네마 스타 장 폴 벨몽드, 세기의 미남 알랭 드롱 등이 있어 카페 운영자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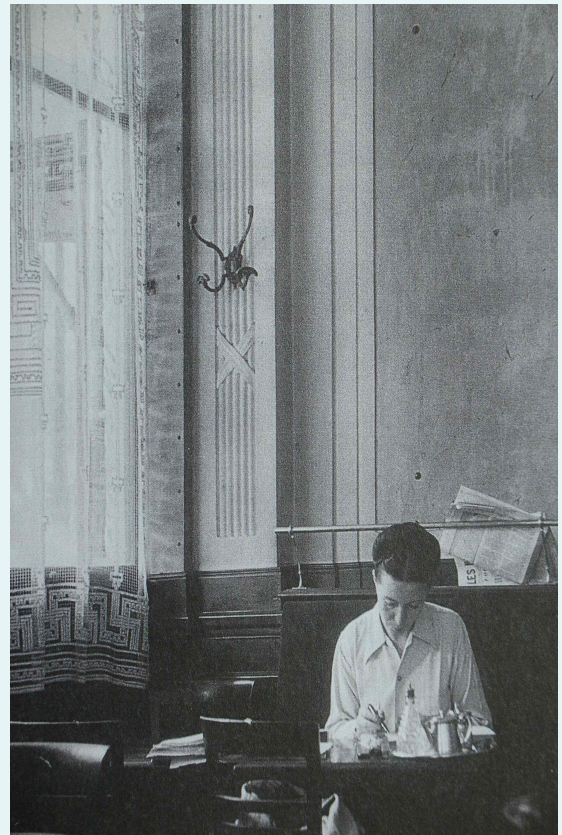
플로르 카페에는 사르트르의 전설이 존재하고 있다. 사르트르는 1941년부터 이 카페에 미모의 여인 보부아르와 함께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부아르와 나는 플로르를 주거지로 만들었다. 거기서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원고를 쓰고, 점심을 먹기 위해 나갔다가 2시에 돌아와서 4시까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원고를 썼다. 우리에게는 플로르가 집이었다. 당시 실로 기묘한 분위기가 그곳에 감돌고 있었다. 플로르는 우리만이 살고 있는 달한 세계였다.

‘우리’란 글쓰는 사람들, 화가, 예술가, 보부아르, 나. 대단한 미남 미녀가 각각 20여 명씩. 그러한 사람들이 달한 세계를 쌓아올리고 있었다. 당시 플로르는 진정한 우리의 클럽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소일하는 이들에게는 플로르 이외의 파리는 미지의 숲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듯 모든 것이 생 제르맹 데 프레의 진정한 시대였다. 참으로 대단한 시대였다.”

(앞의 책, p83)

세계 곳곳에 볼 것도 많지만, 파리의 이곳은 그동안 다녀간 명사들의 흔적으로 인해 아직 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 있는 플로르 카페, 뒤편 카페 등은 소개하고 싶은 곳 중에 최고이다. 왜냐면 지성과 낭만이 거리와 골목골목에서 지금도 품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파리지앵들이 즐겨 찾는 플로르 카페는 장 폴 샤프트르와 보부아르 부인이 매일 이곳 2층에서 담소하며 집필하기도 했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금오산 약사암> 세 번째 이야기 “금오산성과 해운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금오산성 대혜문 | 어서 하늘 높이 오르라며 문짝을 열어젖혔다.

포장도로를 따라 관광호텔 앞을 지나면 왼쪽에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해운사 입구의 '영흥정'이란 약수터 주변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다. 5분 정도의 시간이면 800m가량을 저절로 옮겨 주니 발품을 쉽게 더는 문명의 이기다. 그러나 때로는 어리숙하게 우직한 발걸음을 땀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산행하는 맛 또한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금오산은 생각보다 물이 많은 산이다. 그래서 작은 물통 하나면 정상까지 오르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필요에 따라 곳곳에서 솟는 물을 그때그때 채워 주면 그만이다. 약수도 흔하지만 계곡의 물량도 제법 많은 바위산이다.

금오산 주등산로는 남통동의 관리사무소에서 해운사, 할딱고개를 거쳐 정상인 현월봉으로 이어진다. 주변의 승경을 구경하면서 쉬엄쉬엄 3~4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들머리는 나무로 짜 맞춘 계단길이다. 대략 250개 정도의 계단이 지형에 따라 편안하게 누웠다. 계단 주변으로 드문드문 펼쳐진 공터에는 돌탑을 세워 눈요깃거리를 삼았다. 계단 길이 끝나는 위쪽으로 금오산성이 나타난다. 산성의 북문 역할을 했으리라 미루어지는 대혜문大惠門이 추녀를 들춘다. 대혜문의 출입구로 쓰는 홍예문 천장에는 승천하는 용으로 장식을 하였다. 홍예문 너머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름을 탄다. 금오산이 슬쩍 내면을 열면서, 안쪽에 깊은 계곡이 숨었음을 알려 준다.

대혜골의 물은 '성안'의 습지에 고였다가 흘러나온다.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금오산의 한가운데를 지르는 물이다. 그리하여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숲의 나무를 길러 냈고 산짐승들의 목을 축여 주었다. 대부분 바위로 이뤄진 금오산을 푸르게 가꾸는 소중한 젖줄이다.

한번쯤은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을 즈음에 나타나는 약수터가 '영흥정靈興井'이다. 영흥정은 돌 틈에서 솟는다. 넉넉한 양의 물줄기가 수조로 쏟아지는데, 수조의 생김새가 아주 재미있다. 붉은빛이 도는 천연석을 구유 모양으로 파냈으니, 금오산에 드나드는 나그네들이면 한번쯤 찾는 곳이다. 물맛도 뛰어나다.



영흥정 | 천연석에 마치 말구유처럼 홈이 팬 수조 하나가 영흥정의 맑고도 시원한 물을 채운다. 그리고는 나그네를 기다린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옮기면 해운사海雲寺다. 해운사 역시 주등산로에서 한 걸음 비껴나 있다. 해운사는 본래 고려 초기의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세운 대혈사大穴寺였는데, 임진전쟁 때 소실되어 폐사지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5년에 철화스님이 해운사라는 이름으로 복원하여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낙엽이 물든 가을날의 경치가 유달리 아름다운 절로, 겨울날의 경치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온 산이 붉은 단풍잎으로 가득 넘치는 가을날이면, 여름 햇살에 몸통을 내맡기고 가는 숨을 내쉬던 해운사 뒤편의 웅장한 암벽이 두런거리며 되살아난다. 그리고는 푸른 하늘을 향해 눈부신 나신을 드러내고 지나온 역사를 우렁차게 노래한다.

삼라만상이 잠드는 겨울이 되면, 해운사의 암벽은 내일의 희망을다시 가슴에 담금질하며 해운사를 내려다본다. 그러다가 흰 눈이 계곡 안을 하얗게 뒤덮어 새소리마저 끊어져 고요가 찾아드는 순간이면, 해운사는 그 중압감을 이겨 내지 못하고 저도 몰래 온몸을 부르르 떤다. 야릇한 긴장감에 휩싸인 해운사의 또 다른 매력이다.



해운사 | 염불소리가 넘쳐흐르는 도량 윗쪽의 한가운데에서 도선굴이 빼꼼하다.

해운사에서 올라다 보이는 암벽의 중간쯤에 검은 입을 벌린 동굴이 도선굴이다. 굴을 찾는 탐방객들의 모습이 멀리 보인다. 해운사에는 수많은 유랑객들이 드나든다. 여름철이면 주말마다 금오산에 무려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든다고 한다. 그렇지만 해운사는 스스로 절집다운 기품을 놓치지 않는다. 늘 법문 한 자락을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데, 마침 내걸린 현수막 한 장의 가르침이 퍼뜩 반갑고 고맙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

아침에 눈 뜨며 나는 웃음 짓네.

새롭고 신선한 24시간이 내게 있네.

나는 서원하네, 매 순간을 충실히 살며

모든 존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살다 보면 자신의 초라함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도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이 마치 바위에 몸을 던지는 계란처럼 느껴질 땐, “아무리 작은 생각이나 몸짓도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붓다의 말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깊은 정성으로 다하면 우주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작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통을 줄이는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너의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작은 행동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그러했듯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깨어 있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마음이 곧 힘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누군가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의 선한 행동은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더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감만 갖는다면 당신은 내일 두 개의 고통을, 얼마 후엔 네 개의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작은 힘을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수백만 개의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아주 많지요. 비록 그 힘이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무기력하고 초라한 느낌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지요.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뒤돌아볼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오늘 생각하세요. 시간을 멀리 잡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작아져 버리고 말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운사로 가는 돌계단 | 단정하게 깔린 돌계단 위에서 해운사가 슬쩍 얼굴을 내민다.

어느 분의 말씀인지 몰라도 산문에 드는 나그네에게 주는 의미깊은 선물이다. 정성을 다하는 작은 마음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내용이요, 귀중한 가르침이다. 다른 사찰에서도 무시로 찾아드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법문 삼아 하나씩 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주는 <금오산 약사암> 네 번째 이야기 “도선굴과 대혜폭포”로 여러분 곁을 찾아 오겠습니다.